

명월본향 축일한집님.
 아방국은 최주국 아들애기
 어명국은 정좌수땃님애기우다.
 최주국아들이
 아방눈에 시찌나고
 어명눈에 굴리난
 돌환 내쳐부난
 어명국을 츠산
 검은오름를 오랏더니,
 “내 즈식이 아니니
 기여나라.”헐엿수다.
 최주국아들은
 신산만산 마사기총을
 둘러매고
 신산고지 도올라서
 총을 밤 낮 쏘와도
 뭇 헐나 사농을 못헐엿수다.
 그 때에 7리에
 호근무르 정좌수땃님애기도
 아방눈에 시찌나고
 어명눈에 굴리나서
 산정에 죽을랴고
 올라가서 있는디,
 서로 만났수다.
 정좌수땃님애기가 말을 헐되,
 “산포수가 어찌해서
 산신제를 아니지내느냐?”
 헐여,
 최주국아들은
 그제사,
 밥 전에 가 밥 사고,
 떡 전에 가 떡 사고,
 종이 전에 가 종이 사고,
 보답 전에 가 보답 사고,
 괴기 전에 가 괴기 사고,

경하니,
 “산신제를 지내라.”하여,
 산신제를 지내놓고,
 최주국아들이 정좌수똥
 홀목을 비여잡을랴고 하니,
 “부모 허락 얻어
 홀 필요가 었다.
 아방국을 가자.”하여,
 정좌수칩일 갔수다.
 정좌수똥은 최주국아들을 둘안
 집일 가니깐, 집이선
 “내 조식이 아니니깐
 기여나라.”하여,
 나오는다,
 시름또에 간 시름 쉬고
 연약이또에 간 연약하고
 밥섬에 간 밥 술마먹고
 시름또에 간 시름 쉬고,
 애기네또에 간 애기 낳고.
 애긴, 하나, 둘, 셋, 낳는 것이,
 큰아들은 고완이 오일한집.
 남문बाट 세성님.
 족은아들은 서문बाट 세더대기,
 어멍국은 검은오름 득신똥들
 조숫물 삼대바지.
 세성은 당멸 허릿공 일뢰중조,
 족은 누이는 느지리 캔툼
 마봉오지 노념하고.
 구제기왔디 삼천시위 군벵.

제일, 1월 첫축일.
 8월 첫축일.

<한림읍 옹포리 남무 50세 김승은님>